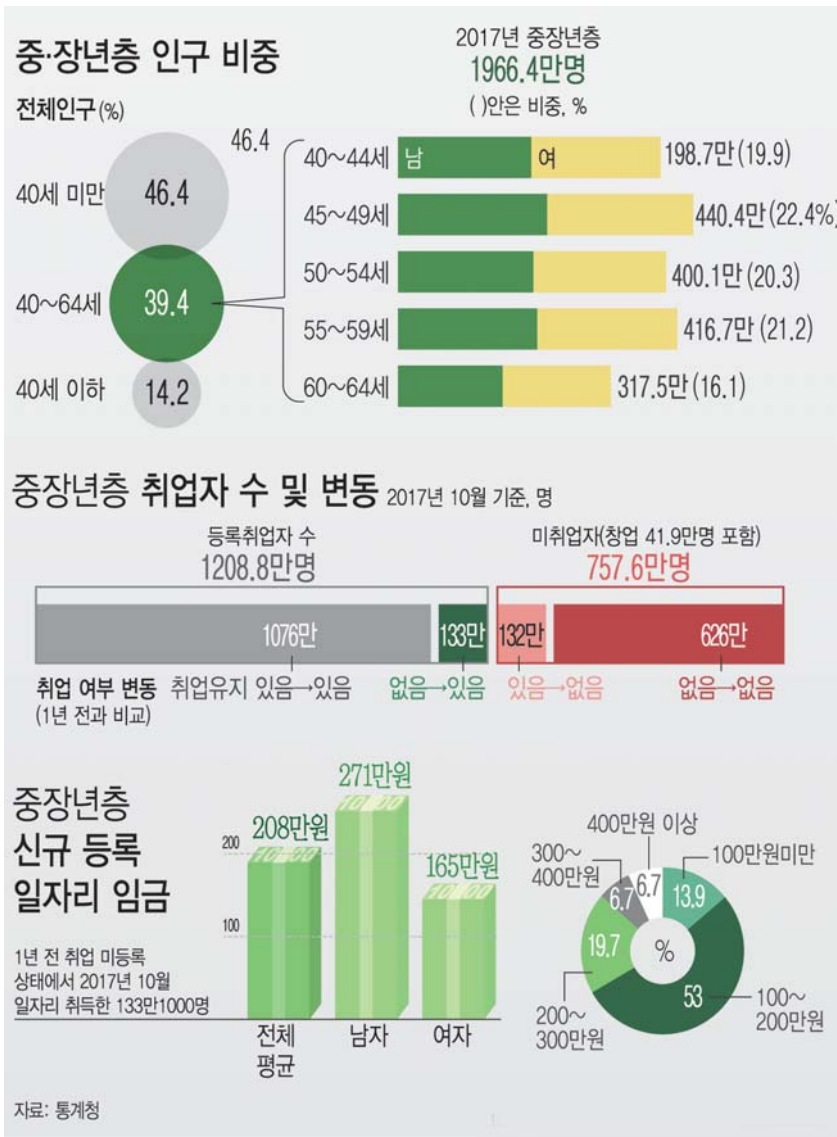


중·장년 취업자 61%...나이 많을수록 자영업 비중 ↑

통계청,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발표
취업자 77% 임금근로...33%가 근속기간 1년 안 돼
연령대 높을수록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비중 증가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중·장년층 인구 중 일을 하고 있는 자의 비중은 60%를 간신히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 등록취업자는 1208만 8000명으로 전체 중·장년 인구의 61.5%를 차지한다. 1년 전(60.6%)보다 0.9%p 증가했다. 남자의 72.5%(715만 1000명), 여자의 50.4%(493만 7000명)가 취업한 상태였으며 40대 초반(67.6%)에서 등록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등록취업자 수를 목적으로 일을 했더라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수산물 생산활동 경영자, 자영업 미등록자 등 행정 자료로 파악되지 않은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취업자와는 차이가 있다.

시·도별로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7.2%)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56.8%)이었다. 중·장년 등록취업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경기 지역에서 11만1000명이나 늘어났다.



중·장년 등록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929만명으로 76.9%를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240만명으로 19.9%다. 임금과 비임금 근로를 병행하는 자는 39만8000명으로 전체의 3.3% 수준이었다. 임금근로자는 기업체(사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임금근로자는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자영업자)나 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2.0%), 건설업(12.9%), 도·소매업(9.8%) 등에서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업체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6.8%에 달했다. 종사자 규모 별로는 4명 이

하인 경우가 98.0%였다. 도·소매업(25.9%)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15.7%), 운수업(12.1%)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 60대 초반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6.7%로 가장 높았다. 50대 후반이 23.2%, 50대 초반이 20.4%, 40대 후반이 17.8%, 40대 초반이 15.0% 순이었다.

2016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기간 개인 기업을 등록(창업)하고 운영 중인 중·장년 인구는 41만9000명이었다. 전체 중·장년 인구의 2.1%, 비임금근로

자의 15.0%를 각각 차지했다. 무직 상태였다가 장업을 한 경우가 60.3%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기준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4000명으로 총 인구(내국인)의 3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0.7% 증가한 수치다. 중·장년층은 작성 기준일 국내에 상주하는 내국인 중 연령이 만 40~64세에 해당하는 이들(생년월일이 1952년 11월1일~1977년 10월31일 기간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남자가 986만1700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여자는 979만1000명으로 비중은 49.8%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0.8%, 0.7% 늘어났다.

뉴스1

중·장년 비임금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대출이 두 배

비임금근로자 평균소득 2846만원...대출은 5654만원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의 약 20%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인 가운데 이들의 소득 수준 대비 부채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치로만 비교했을 땐 1인당 소득보다 대출잔액 규모가 두 배나 더 컸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 비임금근로자의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284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

출 잔액의 중간값은 5654만원에 달했다. 단순 비교하면 벌이보다 빚이 두 배 가까이 많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이 부채는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만 조사한 것이다.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 불법사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통계는 통계청이 만 40~64세 중·장년층 인구 1966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무보수

로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일컫는다.

또 중·장년층 비임금근로자의 절반은 연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9%가 소득 '1000만원 미만' 구간에 위치해 있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 있는 이들은 31%였다. 둘을 합치면 78% 가량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셈이다.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16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를 병행하는 이들은 연 평균 4504만원씩을 벌었다. 전체 중·장년층의 1인당 평균소득은 334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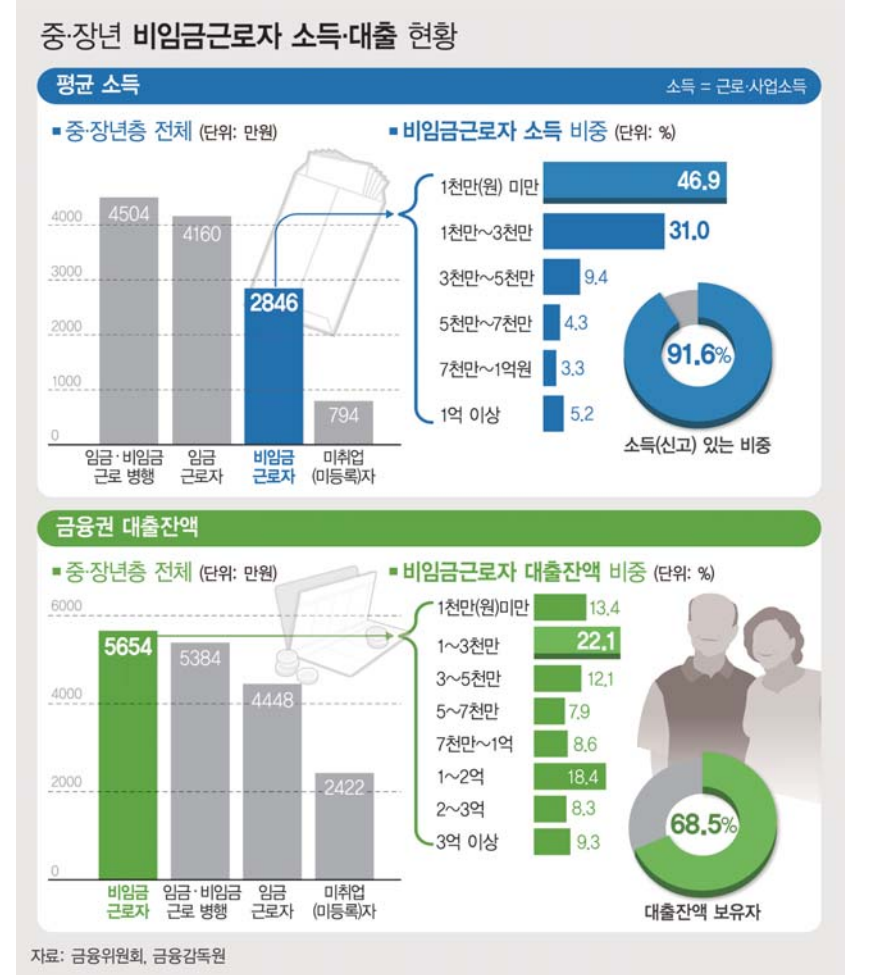
이었다.

중·장년층 인구의 55.2%는 대출을 갖고 있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3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7.7%가 늘었다.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장년층의 41.3%가 집을 갖고 있었다. 전년보다 0.8%p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44세가 37.8%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소유자 비중도 늘어 60~64세가 45%로 가장 높았다.

한편 중·장년층 중에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된 이들은 73.2%(1440만명)였다. 50대 후반의 가입 비중이 78.1%로 가장 높았고, 통상 정년퇴직 시기를 맞는 60대 초반은 53%로 가장 낮았다.

뉴스1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